

## 은행잎 추출의약품으로 유발된 藥疹을 少陰人 藿香正氣散으로 치료한 치험 1례

조세왕\* · 박성식\*

### Abstract

## A Case of Gwaghyangjungkisan on Soeumin with papular eruption resulted from ginkgo-leaves medicine

Cho Se Wang\* · Park Seong 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Drug Eruption refers to an adverse effect which is unintentionally given rise to by dosage, injection, inhalation, suppository and ointment, etc.

Hereby this report is about a remedial value of Gwaghyangjungkisan which was prescribed for a 78 year-old male featuring Soeumin who had suffered from papular eruption after taking a medicine composed of extract of ginkgo leaves.

Key words : Gwaghyangjungkisan, Soeumin, papular eruption.

### I. 서론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약물을 내복, 주사, 흡입, 좌약, 경피등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목적과 다르게 유발된 반응을 약물 알러지 혹은 藥疹이라 한다.<sup>1)</sup>

근래 약의 오용, 남용 및 새로운 약제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약물 알러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약물 알러지로 인한 피부 반응은 면역학적 기전 또는 비면역학적 기전

의 결과로 나타난다.<sup>2)</sup>

자주 사용되는 약물의 1%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원인이 되는 약물이나 병인론적 기전을 밝히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그 진단으로 병변 부위의 조직검사나 IgE반응검사를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응의 종류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 원인약물을 규명하는데는 폐닌실린, 단백질 약물, 소수의 마취제 등의 몇몇 약물에만 유용할 뿐 대다수 약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신저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75번지 돈암한의원 전화) 02-924-6333, Fax)02-3291-6333,

E-mail : sewang1@hanmail.net

물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환자의 병력이나 발병 상황, 임상소견으로 진단을 내린다.<sup>3)</sup>

약물로 인한 피부질환은 담마진, 광과민성 發疹, 색소침착, 혈관염, 다형 홍반, 고정약진, 결절 홍반, 태선양 반응, 수포성 약진, 표피괴사 용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과민 반응에 의해 발생되며 I, II, III, IV형의 과민반응에 해당된다. 약진의 병변은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 병변의 색조가 선명하며 대개 대칭적으로 전신에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sup>4)</sup>

본 보고에서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은행잎 추출의약품을 복용 후 발생한 홍복부 이하의 전신 丘疹性 發疹과 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藥疹에 대하여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sup>5)</sup>에 수록되어 있는 藿香正氣散을 투여하여 완치한 치험 1례가 있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증례

1. 환자 : 김○○, 남자, 78세
2. 주소증 : 홍복부 이하로 전신에 발생한 붉은 색의 發疹성 구진, 심한 소양감(특히 야간에 심함)
3. 발병일 : 2002년 8월 14일
4. 치료기간 : 2002년 9월 27일 한의원으로 내원하여 10월 12일까지 15일간 탕약 투여.
5. 과거력 : 비염 : 젊어서 축농증이 생긴 후 만성화되었다.
6. 가족력 : 별무
7. 현병력 : 소심하고 성격이 급한 78세의 남환은 혈액순환을 위하여 약국에서 2002년 8월 11일 은행잎 추출물을 구입하여 복용 후 3일 뒤 종아리부터 시작하여 허벅지, 복부,

배부로 丘疹性 發疹이 시작되었다. 야간엔 소양증도 심해지고 하여 발병 3일 뒤 약국과 제약사에 문의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용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복용 중지 후 7일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제약사에 항의 후 서울 S병원 피부과에 제약사 직원과 함께 내원하였다. 검사상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령으로 약물요법이 어렵다하여 연고만 도포하기로 했다. 그후 연고제를 처방받아 도포하였으나 증상은 9월 18일 한의원에 내원하기 까지 별 차도가 없었다. 이에 제약사의 치료비 부담을 조건으로 환자가 희망하여 본원에서 치료하기로 하였다.

8. 체질소견 : 상기 환자는 156cm의 키에 48kg의 체중으로 마른 체격이고 전체적으로는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마른 편이다. 평소 건강 염려증이 있고 성격이 예민하면서도 꼼꼼한데 이 증상이 나타난 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고 신경질을 자주 낼 정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다. 임상적으로 少陰人으로 판단하였고, QSCC II상에서도 少陰人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Fig1, 환자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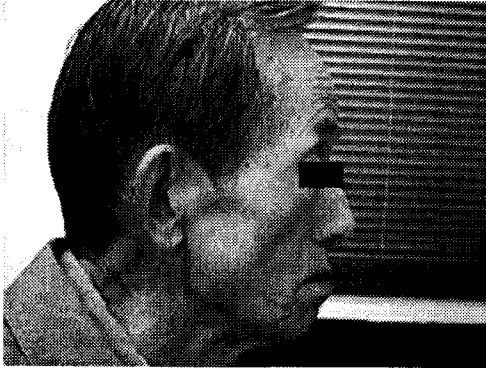


Fig2, 환자의 측면

### 9. 초진소견

全身症狀 : 하지에서부터 丘疹性 發疹이 흉격에 까지 퍼져 있었으며하지가 더 심한 편이었다.

血壓 : 117/75mmHg

消化 : 가끔 소화장애가 있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食事 : 평소 소식을 하였고 이 증상이 있은 후 식욕이 없어졌다.

睡眠 : 평소 양호하였으나 이 증상 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大便 : 평소 1일 1회의 약간 묽은 배변을 하였다.

小便 : 평소 1일 5회 정도의 정상적인 배변을 하였다.

舌診 : 舌紅 薄苔

脈診 : 弱 無力

腹診 : 心下痞滿하여 다소 압통을 호소함.

### 10. 경과

#### 1. 2002년 9월 18일

보호자와 제약회사 직원을 동반하여 증례 환자가 흉격 이하 丘疹性 發疹으로 내원하였다. 發疹의 원인이 35일전 은행잎 추출물 복용 후 생겼다고 하며 흥분한 상태로 야간엔 소양감으로 수면도 불량해져 상당히 신경질적이었다. S병원 피부과에서 8월말부터 제약사 부담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다 하여 한방치료를 결심하였다. 제약사 직원은 더 이

상 책임을 질 수 없다하여 이번 치료가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쌍방이 한 후 진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진찰 후 少陰人으로 판정하였다. 예후에 대한 부담감으로 藿香正氣散을 5일분만 우선 투여하였다.



Fig3, 치료 전 발병한 우측 대퇴부



Fig4, 치료전 발병한 우측 종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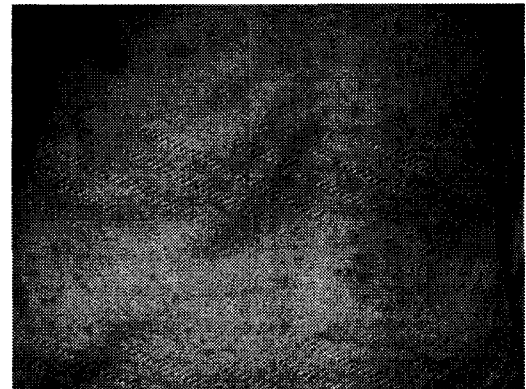


Fig5, 치료전 발병한 흉부

2. 2002년 9월 23일

증례 환자 본인 혼자 내원하였다.

증상이 육안으로 보기에 절반정도 없어지고 수면상태도 호전 됐다며 밝은 표정이었다.

藿香正氣散을 10일분 처방한 후 완치 판정을 위해 복용 후 한번 더 내원하라고 권유하였다.

3. 2002년 10월 3일

흉격 이하 丘疹性 發疹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환자 자신도 심리적 안정과 정상 수면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치 판정을 하였다.



Fig8. 치료15일 후 완치된 흉부



Fig6. 치료15일후 완치된 우측대퇴부



Fig7. 치료15일후 완치된 우측종아리

### Ⅲ. 고찰 및 결론

藥疹이란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약물을 내복, 주사, 흡입, 좌약, 경피등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목적과 다르게 유발된 반응을 말하는데 면역학적 또는 비면역학적 기전의 결과로 나타난다.<sup>1,2)</sup>

면역학적 반응은 숙주 면역경로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며 약물 알러지라고 한다. 비면역학적 기전을 통한 약물반응은 작동경로의 활성화, 과다투여, 누적된 독성, 부작용, 생태학적 혼란, 약물간 상호작용, 대사장애, 존재하고 있던 피부과적 상태의 악화, 또는 유전된 단백질 또는 효소 결핍으로 발생한다. 약물에 대한 비면역학적 피부반응이 더 흔하다. 대개 피부반응은 약물에 노출된지 1주일내에 발생한다.<sup>6)</sup>

비록 약진이 흔하더라도 피부는 제한된 적은 수의 반응양상을 통해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약물이나 병인론적 기전을 밝히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그 진단으로 병변 부위의 조직검사나 IgE반응검사를 하지만 이는 반응의 종류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 원인약물을 규명하는데는 폐닌실린, 단백질 약물, 소수의 마취제 등의 몇몇 약물을 제외한 대다수 약물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환자의 병

력이나 발병 시기, 약물 수준과 과용량의 확증, 임상조건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sup>3)</sup>

알려진 기전에 의한 약진의 증상은 담마진, 광과민성, 색소침착, 혈관염, phenytoin 과민성 증후군 및 피부의 warfarin 과사가 있으며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기전에 의한 반응으로는 홍역상 반응, 다형홍반, 고정약진, 결절 홍반, 태선양 반응, 수포성 약진 및 독성 표피괴사 융해증이 있다. 약진의 병변은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 병변의 색조가 선명하며 대개 대칭적으로 전신에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sup>3)</sup>

증례 환자가 복용한 은행잎 추출물은 충킹 코플라본배당체로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강압, 콜레스테롤 저하, 관상동맥 확장, 혈액순환 가속, 혈류저항 감소작용이 강하여 관상성심질환인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활용한다.<sup>7)</sup>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가벼운 위장관 불편감, 두통, 알러지성 피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약물에 과민증 환자에는 투약하지 않는다고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일반의약품이지만 주의사항에서도 지적했듯이 간혹 이 약물에 과민성을 가지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증례 환자 역시 이 약물에 과민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증례 환자가 내원할 당시 마르고 성격이 상당히 예민하면서 신경질적인 편으로 容貌詞氣 만으로도 少陰人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丘疹性 發疹이 특이하게 홍역 이하에만 퍼져있고 心下痞滿과 다소 묽은 大便을 보는 것으로 보아 이 증상을 少陰人 表病證의 鬱狂初證에 리냉증을 겸한 증상으로 보고 藿香正氣散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양방 피부과 치료로도 차도가 없다하여 조심스럽게 투여하기로 하였다. 반재 5일분 복용 후 가려움증 및 丘疹性 發疹등의 증상이 70% 호전되고 심리상태도 편안해져 재차 10일분을 투여한 후 완치되었다.

少陰人 藿香正氣散은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sup>5)</sup>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に 수록되어 있으며 龔信의 古今醫鑑에 기재된 藿香

正氣散에서 桔梗, 白芷, 白茯苓을 거하고 桂皮, 乾薑, 益智仁을 추가하여 만든 처방으로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에 두루 사용된 처방이다. 藿香 一錢五分, 紫蘇葉 一錢, 蒼朮 白朮 半夏 陳皮 大腹皮 桂皮 乾薑 益智仁 炙甘草 各 五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太陽病 大腸怕寒, 鬱狂初證, 少陰人 胃受寒裏寒病의 太陰病 下利清穀 등의 증에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8)</sup>

李濟馬는 腎受熱表熱病에서 張仲景이 논한 太陽傷風 發熱惡寒者를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이라 하여 이 증에 發熱惡寒而無汗者는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등과 함께 藿香正氣散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少陰人 表病證의 鬱狂初證에 응용함을 밝혔다.<sup>5)</sup>

또한 太陽病의 外證未除한 상태에서 其人如狂者는 腎陽困熱이고 小腹硬滿者는 大腸怕寒인데 大腸怕寒이면 마땅히 藿香正氣散이나 香砂養胃湯으로 和解한다고 하였으며 만일 外熱이 包裹冷하여 毒氣가 重結於內하여 장차 養虎遺患의 弊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먼저 巴豆丹을 써서 설사를 시킨 후에 藿香正氣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up>9)</sup> 이는 表病이 있으면서 裏病證이 동시에 나타날 때 裏病證을 먼저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함을 밝힌 내용으로 볼 수 있다.<sup>9)</sup>

또한 藿香正氣散은 婦人傷寒發熱에 經水適來適斷하고 晝日明了, 夜則譫語하여 如見鬼狀한 熱入血室證과 陽明病의 口燥嗽水不欲嚥한 증, 陽明病에 不能食한데 攻其熱하면 반드시 噦이 생기는 증, 비록 陽明病에 속해도 嘔多하여 攻下해서는 안되는 증 등, 陽明病證에서도 香砂養胃湯이나 八物君子湯과 더불어 응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sup>10)</sup> 이 또한 비록 表病이라 하여도 裏寒證으로 인한 病證을 수반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한편 李濟馬는 張仲景이 病發於陰而反下之

라 말한 것을 病發於胃弱한 것으로 마땅히 藿香正氣散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大黃 등으로 下法을 썼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sup>9)</sup> 이는 藿香正氣散이 病發於陰 혹은 胃弱한데 응용되는 처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胃受寒裏寒病에서 少陰人病 下利清穀者는 積滯가 自解하는 것인데 太陰症 下利清穀者는 마땅히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등으로 溫胃而降陰하고 少陰證 下利清穀者는 官桂附子理中湯으로 健脾而降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sup>9)</sup> 이는 藿香正氣散이 溫胃而降陰하는 치료기전에 의하여 太陰症에 응용되는 처방임을 설명한 내용이다.”

또한 李濟馬는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官中湯, 蘇合元 등은 모두 張仲景 瀉心湯의 變劑로 이는 소위 靑於藍者 出於藍란 것이다.”라 하여 後世方 藿香正氣散이 瀉心湯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sup>9)</sup> 李濟馬는 瀉心湯증의 主症狀인 心下痞를 太陰病症의 주된 증후로 삼고 溫胃而降陰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sup>9)</sup>

이상으로 이제마는 藿香正氣散을 東醫寶鑑에 나온 다양한 병증운용에서 瀉心湯의 정신으로 요약하고 溫胃而降陰하는 치료정신으로 해석하여 약물을 少陰人에 맞게 구성하여 운용하였다.”<sup>9)</sup>

少陰人 藿香正氣散은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에 두루 사용하며 처방정신에 따라 李濟馬 이후의 四象 醫家들에 의하여 太陰症 吐瀉, 外感風寒, 四時不正之邪, 惡寒發熱, 下焦蓄血證, 內傷飲食, 頭痛, 嘔逆, 胸悶, 腹脹, 咳嗽, 嘔吐, 泄瀉, 霍亂 癰疹, 中風初證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왔다.<sup>10)</sup>

본 증례를 통하여 이상의 병증 이외에도 알려진 반응으로 유발된 藥疹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소음인에서 藿香正

氣散은 表病證과 裏病證을 겸하고 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少陰人 藿香正氣散은 升陽益氣와 裏陰降氣 작용을 동시에 발휘하면서 장부간의 불균형을 조절하므로 면역조절작용과 항 알러지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9)</sup>

이상의 내용은 은행잎 추출 약물을 복용 후 발생한 흥배부 이하의 전신 丘疹性 發疹과 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藥疹에 대하여 少陰人 藿香正氣散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증례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V. 參考文獻

1. 신태양사 편집국 백과사전부,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12권, 서울, 신태양사, 1994 ; 197
2.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학, 서울, 백왕사, 1994 ; 158-159
3. 해리슨 내과학 편찬위원회, 해리슨 내과학 I 권, 서울, 정담, 1997 ; 303-309
4. 피부과학 원색도감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원색도감, 서울, 정담, 1999 ; 574-575
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출판사, 1979 ; 9, 29-41, 63, 69
6. 안성구 외2인, 흔히보는 피부질환, 서울, 고려의학, 1993 ; 158
7. 김재익, 임상본초학강좌, 서울, 대성의학사, 2001 ; 690
8. 송일병 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 458-462
9. 안보국, 소음인 곽향정기산의 항 Allergy 작용, 우석대학교, 2001 ; 1-2, 28-30
10. 원지상, 동의사상신편, 대구, 한림원, 1990 ; 24-26, 42